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

2026. 9. 1.(목) 16시

동포 목소리 예산에 담아...

2027년 재외동포청 예산안 1,369억원 편성

- 올해보다 21.4% 증가...개청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
- 한글학교 지원 확대·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에 중점
-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 확대, 고려인 강제 이주 90주년 사업 추진

□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1,127억 원보다 242억 원(21.4%) 늘어난 1,369억 원으로 편성했다. 2023년 개청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.

○ 이번 예산안에는 역대 정부 최초로 실시한 ‘전 세계 동포 대상 건의사항 조사’와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동포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요구를 반영했다.

○ 특히 한글학교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(+ 60억), 민원과 소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하는 ‘디지털 통합 플랫폼’을 새로 구축한다(+ 34억).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·정착지원(+ 58억)과 고려인 강제 이주 90주년 기념 사업(+ 73억) 등 역사적 특수동포 관련 사업도 강화한다.

□ 한글학교 지원 확대... 올해 대비 30%↑ 증액

○ 차세대동포의 한인 정체성 교육을 담당하는 한글학교 지원 예산이 올해 195억 원에서 2027년 255억 원으로 30% 이상(60억 원) 늘어난다.

○ 이에 따라, 전 세계 1,472개 한글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율이 현재 평균 26%에서 30% 수준으로 상향되며, 중장기적으로 최대 50%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. 한글학교 지원 확대는 그동안 동포사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주요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다.

- 동포단체 활동과 한인회관 건립 및 환경개선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. 국가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현지 한인대회 개최 지원도 강화해 동포 사회 내 교류를 촉진한다.

□ 민원·소통 한 곳에서...‘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’ 구축

- 해외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관련 서비스와 소통 창구를 하나로 연결하는 ‘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’ 구축에 처음으로 34억 원을 투입한다.
- 플랫폼에는 민원 처리와 정책 정보, 쌍방향 소통, 동포 커뮤니티 등의 기능을 통합한다. 동포 관련 정보를 연계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도 마련한다.
- 여권·사증(비자)·재외선거 외 재외국민 민원 서비스를 처리하는 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인증시스템(G4K)의 노후 정보자원도 교체한다.

□ 사할린동포 귀국 지원 늘리고, 고려인 강제이주 90주년 기념

- 역사적 특수동포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린다.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예산은 올해 78억 원에서 136억원으로 70% 이상 확대한다.
- 2024년과 2026년 두 차례 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, 현 정부 임기 안에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 전원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.
- 고려인 강제 이주 90주년을 맞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고려인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, 국내외에서 고려인의 이주 역사를 기억하는 기념 사업도 추진한다.

- 이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약 86만 명의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. 해외 우수 동포 청년이 국내 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취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국내기업 인턴십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.

□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“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의미는 동포사회가 현장에서 제기해 온 요구를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연결했다는 데 있다”며 “한글학교 교육환경부터 민원서비스, 귀환과 정착까지 동포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끼는데 예산이 쓰이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

※ 붙임 : 2027년 재외동포청 주요 증액 및 신규 사업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 이창원 (032-585-3128)
		담당자	사무관 방선희 (032-585-3130)



- ① **(민원해소)** 전 세계 동포사회의 건의사항과 민원을 예산에 적극 반영, 차세대 정체성 교육 강화 및 한인 네트워크 결속 지원 등 주요 민원 해소

- ▶ 한글학교 역량 강화 (195→255억원, 30.3%)
- ▶ 동포단체 활성화 (32→45, 42.3%)
- ▶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(6→12, 100%)
- ▶ 세계한인회장대회 (13→18, 38.3%)

- ② **(소통강화)** 전 세계 700만 동포를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 구축 및 현지 동포사회 의견 청취 기회 확대

- ▶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(0→34억원, 순증)
- ▶ 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시스템(G4K) 노후 정보자원 교체 (0→44억원, 순증)
- ▶ 동포 간담회 개최 (18→59억원, 229.5%)

- ③ **(역사적 특수동포)**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, 고려인 중앙아 강제이주 90주년 계기 역사박물관 건립 및 기념사업 개최 등 역사적 동포 예우 강화

- ▶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(78→136억원, 74.4%)
- ▶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(25→86억원, 239.7%)
- ▶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 기념사업 (0→12억원, 순증)

- ④ **(국내귀환동포)** 국내 거주 86만 외국국적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세부실태 파악 및 글로벌 청년 인재의 국내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

- ▶ 귀환동포 실태조사 (0→7억원, 순증)
- ▶ 동포청년의 국내기업 인턴십 (0→3억원, 순증)